

마음 챙김 통해 비즈니스 배운다

최고 경영자 마음 다스리고 집중력 키우는 교육 과정 수강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피터 F. 드러커·마사토시 이토 대학원(Peter F. Drucker and Masatoshi Ito Graduate School),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Harvard Business School) 등에서 개설한 최고경영자 과정의 교육자들이 불교의 '마음 챙김(mindfulness)'에서 최고의 '비즈니스 기술'을 찾아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asia.wsj.com, 아시아판)이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들이 주로 등록하는 명문 비즈니스 스쿨에서 불교의 마음 챙김이 교육의 주제와 방법으로 적극 수용되고 있다"고 4월 3일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에서 "MBA 및 최고경영자 과정을 받고 있는 교수들은 피교육생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집중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마음 챙김에 주목하고 있다"며 "교수들은 마음 챙김이야말로 최고경영자들이 느끼는 분기별 이익 보고서에 대한 엄청난 압력까지도 떨쳐내게 하는 비즈니스 기술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하고, "최근 몇 년 간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기업윤리로 인해 비난을 면치 못한 명문 비즈니스 스쿨이 새로운 교육 철학을 찾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스위스 로잔에 있는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벤 브란트(Ben Bryant) 교수는 최고경영자 과정의 피교육생에게 비즈니스 현장에서 호흡을 집중하고, 소리와 감각에 깨어 있는 방법으로 마음 챙김을 가르치고

있다. "너무 바쁘고 많은 짐을 지고 있어 자신은 물론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최고경영자들에게 단지 명상만을 강조해 비즈니스와 접목한다면 진저리 칠 것"이라는 벤 브란트 교수는 "마음 챙김은" 바쁜 일상에서도 자신을 바라보고, 주변의 사람들과 소통하게 하는 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그것(마음

美 하버드대 비즈니스 스쿨 등 '마음 챙김'서 경영비법 구해

챙김)은 마치 최고경영자들에게 거대한 시너지 효과를 안겨줄 수 있는 아주 작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피터 F. 드러커·마사토시 이토 대학원(Peter F. Drucker and Masatoshi Ito Graduate School, 이하 DRUCKER)의 제레미 헌터(Jeremy Hunter) 박사는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주제로 '마음 챙김'을 최우선으로 꼽는다. 그에 따르면 "마음 챙김은 집중력을 강화하는 최상의 방법"이고, "집중력은 사업 현장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인 까닭에 최고경영자의 교육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DRUCKER의 최고경영자 및 MBA 과정에서 '자영(自營, self-management)'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제레미 헌터 박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에서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리더십 강연을 하고 있는 벤 브란트(Ben Bryant, 사진 맨 왼쪽) 교수

사는 "자신을 경영한다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 역시 잘 경영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수업에 앞서 짧은 명상으로 피교육생의 감정을 다스린 후 강의를 시작하는 그는 또한 "DRUCKER 비즈니스 스쿨의 장정 중에 하나는 굳이 '명상 박람회'와 같은 곳에 가지 않더라도 마음 챙김의 방법론과 그 유용성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관람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Harvard Business School)의 리더십 교수 윌리엄 조지(William W. George)는 피교육생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도록 이끄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그는 최고경영자 과정의 수업에서 모든 피교육생에게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공유하도록

권유한다. "경험을 토대로하고 공유하게 하는 것은 자각(自覺)의 힘을 키우기 위한"이라고 설명한 윌리엄 조지 교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경영자 대부분은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던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의 흐름을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그는 "마음 챙김은 최고경영자들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조직(기업) 안에서 완벽하게 보여야 한다는 등의 모든 망상을 떨쳐내는 힘이 있다"며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을 명상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동안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커다란 변화를 보고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오종욱 편집위원

사회주의 시각으로 선종해석

세계의 불교학자(13)

두계문 中 사회과학연구원 박사



중국 사회과학연구원 두계문 박사는 <중국불교와 중국문화>라는 저술로 잘 알려져 있다. 21편의 논문으로 구성된 책에는 두 박사가 20년간 매진해 온 불교연구 및 한국 일본 불교학계와의 교류 성과 등이 수록돼 있다.

두계문 박사는 불교사 연구에 있어 중국의 불교 문화 사회와의 관계를 중시했는데 이는 그의 저서 <중국선종통사> (대승기신론)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사회적·역사적 입장에서 중국불교사를 기술한 그의 학문적 영역은 1994년 중국 고적도서 출판분야 2등상 획득이 말해 주듯 확고한 위치에 있다.

<중국선종통사>는 중국 최초로 선종 발전사를 체계적으로 서술한 책이다. 두계문 박사는 이 저서를 통해 선종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데 있어 창의적이고 개척적인 성격을 보여줬다. 두 박사는 선종의 선 관념과 선종조직 형식이 변천하는 과정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사회·역사적 상황 속에서 고찰해 기술했다. 두계문 박사는 단순한 전기와 사상적 원류, 철학적 이론, 사유의 방식, 학파들의 분기·결합 등 사실의 나열에 국한하지 않았다.

두 박사는 사상의 흐름 속에서 중국 선종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천했고, 그 과정에서 보여주고 형성된 성격 및 양상과 같은 제반사항들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증명했다. 또한, 그 속에서 사회적·역사적으로 제약받았던 활동의 작용이나 역할들을 심도 있게 고찰했다.

두계문 박사의 넓고도 깊은 중국선종사 대한 이해는 그의 연구성과물이 세계 불교학술계에서 주목받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두 박사는 중국 선종 전체의 활동상을 철학적 기초와 사유방식에 대입해 체계적으로 논술했다. 두계문 박사가 선종 속 신이(神異)를 학문적으로 고찰한 것은 그간 학술계에 만연했던 신이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는 성과도 거뒀다. <중국선종통사>를 통해 두계문 박사는 중국불교사 전반에 관해 현실적이면서도 독특한 시각을 제시했다.

두 박사는 중국불교가 다민족문화의 사상이니데 착안해 연구를 전개했다. 두계문 박사는 중국불교를 중국민족의 출가자, 재가문인들, 소수민족 등이 함께 만든 결과물이라고 봤다. 동한시대 말기 이후에 서방의 여러 나라를 통해 중국으로 불교가 유입된 이후로 불교는 발전했다. 수당시대에 이르러 불교의 여러 종파가 형성됐다. 두계문 박사는 수당시대 형성된 종파의 창립자들이 중국민족이 아닌 출가자들과

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즉 삼론종의 창시자는 파르티아인 길장(吉藏)이었다. 현장이 개창했던 유식법상학이 최종 형성됐던 것은 그의 제자인 선비족 규기(慧基)와 조선인 원측(圓測)에 의한 것이었다.

두 박사는 중국불교의 여러 종파 가운데 밀종과 선종의 개성이 가장 두드러졌다고 생각했다. 밀종과 선종은 선명한 개성을 갖고 당시의 사회적인 특수한 요구에 부응했다는 설명이다.

두계문 박사는 사회적·역사적 상황에서 봤을 때 외래불교가 도입된 것이 중국에서 승려 계층을 형성케 했다고 봤다. 두 박사의 이러한 견해에는 바로 승려계층이

불교사연구에 문화·사회 접목

선종사 연구 등 학문적 입지 확고

'중국불교와 중국문화' 등 저술로

중국고적도서 출판분야 2등 하기도

사회적 대항이나 반발에서 일종의 완충적인 역할을 구성했다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당대부터 남송시대 이르는 선종의 발전사에서 그는 그러한 선종의 발전사에 깔려있는 사회적 토대는 바로 토지를 잃은 농민, 유랑민 및 좌절된 사대부에 있다고 봤다. 따라서 그는 선종 속에는 농민과 사대부들의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을 간파했다.

두 교수의 연구성과는 사회적·역사적으로 선종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동북아 불교연구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두계문 교수는 1930년 중국 산둥지방 청도 인근 노산에서 태어났다. 1958년 북경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1961~1963년 남경대 불학연구소에서 학습했다. 당시 저명한 불교학자인 여징(呂徵)에게서 사사를 받았다. 이후 내몽고 대학 철학과에서 교편을 잡은 그는 북경대에서 후학들을 지도했다. 주요 저서로는 1980년대 임계유가 주편한 <중교사전> 1권과 <중국불교사> 1~4권 저술에 참여했다.

조동성 기자 cetana@hyunbul.com

달라이 라마, 템플턴상 수상

일명 '종교계 노벨상'... "비폭력·종교간 화해" 등에 기여

티베트의 정신적인 지도자 달라이 라마(Dalai Lama·76)가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상(Templeton Prize)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존 템플턴 재단(John Templeton Foundation)은 "보편적 윤리와 비폭력, 세계 종교 간 조화를 위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목소리를 내온" 공로로 2012년 템플턴상을 달라이 라마에게 수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단 측은 시상식이 오는 5월 14일 런던의 세인트 폴 성당에서 거행된다며 상금은 110만 파운드(약 20억원)라고 전했다.

달라이 라마의 템플턴 상 수상 발표는 중국의 탄압정책에 항의해 티베트인이 30번째로 분신을 감행한 가운데 나왔다. 티베



달라이 라마가 템플턴 수상소식을 듣고 축하하는 대중에게 화답하는 모습

트 불교 승려와 여승이 대부분인 분신기도자 중 최소한 20명이 목숨을 잃었다.

템플턴상은 과학과 종교 간 이해 증진을 위해 1972년 미국 태생 영국의 금융인이자 자선사업가인 존 마크 템플턴이 창설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티베트 장경 인쇄展

4월 22일 UCLA 파울러 박물관서

티베트 대장경의 제작 과정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시회가 UCLA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의 파울러(Fowler) 박물관에서 4월 22일부터 10월 14일까지 개최된다.

'실국의 진주 : 대계 파켄의 티베트 대장경 인쇄' 전시회에서는 티베트 불교문화의 정수로 꼽히는 대계 파켄(Derge Parkhang)에서 300여 년간 이어져 내려온 전통 방식 그대로 제지·판각·인경 등 대장경 제작 전체 과정이 재현한다.

이와 함께 대계 파켄에서 제작된 30만여 장의 경판을 비롯해 도서, 그림, 판화 등도 전시될 예정이다.

경판에는 200여 년 전 삼메(Samye) 사원에서 경판을 만들었던 파드마삼바바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일 30만여 장의 경판을 정리하고 있는 판각 기술자들

(Guru Padmasambhava) 스님의 초상화와 티베트 불교사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으로 추앙받고 있는 드로마(Guru Droma) 스님의 초상화 등도 처음 선보인다.

오종욱 편집위원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히**
불전함

원목 벉탁
움직이거나
털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원목 벉상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북 043-647-2378, 011-467-1472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특강안내

수정기공 Soojung Touch Therapy
대한민국 인증대상(기공부문)
신지식 서비스기업 대상

사랑하는
마음만을
전달합니다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강 의 : 매월 첫주 시작 4회 완성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모집인원 : 매회 8명 이내
연 락 처 : 010-3463-7806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설법·화술

설법, 강의, 인사, 축사, 최면 등

교육내용

-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최면 등 이론 및 실습
-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 종합반 :
(1)매주 목요일 (2개월과정)
- (2)훈련식 교육임으로 하시라도 등록 가능함
- ◆ 특 혜 :
(1)3인이 함께 등록할 경우 원하는 일시에 맞추어 드림
- (2)개인지도, 출장지도 가능함 - 직접 상담 결정함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韓國說法研修院

서울시 중로구 중로3가 16번지 교영빌딩 7층 / 1,3,5호선 중로 37역 1번 출구

010-7248-1567
☎ 02)747-1567 / FAX 02)766-2475